



연합회 소식

‘중국 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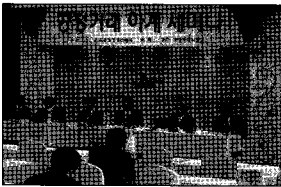
중국 반독점법을 대비한 관련법 현황 및 주의사항 설명

본 연합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중국 반독점법·반부정당경쟁법 최근 동향 설명회』가 7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은 8월 1일부터 ‘중국판 공정거래법’인 반독점법(反壟斷法)을 시행합니다.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가격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행위중지명령과 위법한 소득몰수조치 및 전년 매출액의 1~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초대형 기업은 자칫 수천 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독점법 관련 규정에는 모호한 내용이 많고 중국 당국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국에 진출한 2만여 개의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향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반독점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제공해 중국 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국 반독점법 최근 동향 설명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체 임직원과 변호사 및 연구원 등 100여 명이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는 중국의 반독점법·시행령 등의 내용과 경쟁당국 현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중국 경쟁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 교수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공정거래 하계 세미나’ 개최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바람직한 기업상’ 초청강연



본 연합회는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널리 확산하고,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센터 리더스클럽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 기업 CEO와 자율준수관리자 등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 및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함께 바람직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5개팀과 14개 분과로 구성되는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9월에 실무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에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공정위는 “국제적 기준 부합 여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여부, 법규정간 중복 내지 상충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차관회의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선진화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토론에서는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가 발제하고 업계, 학계, 법조계 대표들이 패널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패널토론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CP등급평가 위탁 용역' 참가

7월 21일~12월 1일까지 등급평가 및 결과보고

본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 용역'에 참여합니다.

이번 용역 입찰은 7월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7월 8일부터 18일까지 제안서 기술(가격)평가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낙찰됩니다.

계약 체결 후 7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130일) CP 등급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하게 됩니다.

CP가 도입된 이후 CP 도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CP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CP가 기업문화나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CP 도입 기업에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P 등급평가 위탁 용역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30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된 기업이 평가대상입니다. CP 등급평가는 CP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설문지)를 작성·배부해 결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는 ▲ CP 제도의 도입관련 항목 ▲ 최고 경영자의 실천의지 관련 항목 ▲ 자율준수관리자 관련 항목 ▲ CP 교육관련 항목 ▲ 자율준수편람 관련 항목 ▲ 인사제재시스템 관련 항목 ▲ 자율준수 풍토 관련 항목 ▲ 범위반 행위 감시관련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달합니다.

한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대상 업체별 CP 평가점수 산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정책, 법률, 회계, 경영분야의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등급은 '최우수' 등급에서 '매우 미흡' 까지 8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하게 됩니다.

올해 CP 등급평가를 희망하시는 회사 및 CP 도입 기업들은 이번 CP 등급평가 위탁 용역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등급평가 희망기업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소식

'변호사특별연수' 1차 교육 실시

강의 주제 및 내용 충실함 호평 받아

본 연합회는 6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심·판결 사례분석과정' 변호사 특별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내용을 담보함은 물론 수강생의 출결관리에 철저함을 기한 이번 1차 특별연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50여 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변호사특별연수에서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전 공정위 송무담당관)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조성국 중앙대 교수(전 공정위 심판담당관)가 '국제 카르텔'을, 김성목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가 'M&A(기업결합)'를,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부당지원행위'를, 김영철 건국대 교수가 '법조인의 윤리'를 강의했습니다.

실무법조인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심·판결 사례 분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강사진과 그들이 직접 작성한 충실한 강의 자료를 준비했던 만큼, 수강한 변호사들에게 여타 관련 교육에 비해 강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자료 준비의 충실함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위탁연수기관으로 선정된 본 연합회는 1차 특별연수 실시 이후 9월과 11월에도 해당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연수 사례과정 공정거래교육 및 각종 교육 실시

맞춤교육과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 등 실시

본 연합회는 6월 19일과 20일 양일 간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2008 전문연수 제3기 공정거래 심결사례과정' 교육을 각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공정위와 법원이 실제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다양한 심·판결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엄선, 이를 분석·토의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5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6월 11일 현대카드, 25일 메가마트, 27일 하이맥주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교육을 실시했으며, 6월 25일에는 법위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